

장애인 고등교육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인식 탐색: 교수 및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을 중심으로

김 영 석*

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정 동 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 요 약 》

본 연구는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 현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인식을 탐색하고, 향후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경험이 풍부한 교수 5명과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 3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자료를 개방부호화 과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장애인 고등교육 현황과 전망에 대한 7개의 핵심주제와 20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7개의 핵심주제는 1)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 2) 장애대학생도우미 제도, 3) 장애대학생복지실태평가, 4) 장애대학생의 선택(졸업 유예와 중도 탈락), 5)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의 3중고, 6) 등록금이라는 벽, 7) 장애인 고등교육 방향이고, 핵심주제와 하위주제는 연구결과로서 논의되었다. 이를 근거로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 상 반영되어야 할 현장의 요구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중등이후교육, 초점집단면담

* 제1저자, 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 교신저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dychung@knue.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5년 장애인 특별전형이 시행되면서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입학 기회가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대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기준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 수 87,278명(교육부, 2014)의 10%에 해당하는 8,248명(대학교육협의회, 2015)이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다. 하지만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 초기에 각 대학은 장애대학생을 위한 물리적 환경도 갖춰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김헬레나, 2000),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 상에 나타난 요구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김성애 외, 2003; 윤점룡, 김주영, 2002) 중도 탈락하는 장애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이었다(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 이에 장애대학생의 대학 입학 이후 장애학생이 대학 생활 및 학업에 적응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 및 학습 지원 체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그에 관한 연구들(김남순, 2001; 원종례, 2001; 정정진 외, 2003)이 본격화 되었다.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과 법을 제정하여 각 대학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교육부는 2003년부터 매 3년마다 기초 및 정책 연구(정동영 외, 2005; 정정진, 2007; 정정진, 이해균, 2006)를 토대로 선발 부문, 교수-학습 부문, 시설 부문의 3개 영역 내 지표들을 구성하고 서면 및 현장 평가를 통해 대학의 등급을 부여하는 장애대학생복지지원실태평가를 통해 각 대학의 장애대학생을 위한 고등교육 여건을 점검해오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대학생에게 일반도우미(학내 이동, 생활 지원, 강의대필 등), 전문도우미(수화, 점역, 속기 등), 원격도우미를 제공하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대학생의 생활 및 학습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학령기 특수교육대상학생만을 다뤘던 특수교육진흥법과 달리 고등교육 부분을 포함하여 각 대학에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 전담 직원을 두어서 장애대학생 편의 제공, 교육 지원, 장애학생교육복지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장애대학생에 대한 법과 정책적인 지원 아래 장애인 고등교육 현황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우선 장애대학생 대학 적응에 관한 연구(김경민, 2014; 김동일 외, 2013; 김미선, 2012; 조성희, 손승현, 2013; 최지영, 2009)는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대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 대학 생활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변화 과정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일부 연구들은 장애대학생 지원 정책 중 장애대학

생 도우미 제도에 관한 연구(강혜경, 김정효, 이경순, 2011; 김미선, 2011; 이미숙, 2011; 임진선, 이철원, 2011)로서 장애대학생 도우미를 대상으로 면담 후 면담자료를 분석하는 질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장애대학생 도우미의 적응 과정과 장애대학생 도우미 제도의 보완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주로 장애인 고등교육의 당사자인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내용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에서 장애대학생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이나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담당한 교수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일부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만을 대상으로 장애대학생 도우미 제도에 한정하여 질적 분석한 연구(서정원, 오세철, 2012)는 있었지만,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제시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인 고등교육 전반에 대하여 장애인 고등교육을 연구한 교수와 장애대학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고등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첫째, 전문가들의 장애인 고등교육 현황과 요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전문가들의 장애인 고등교육 제도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의도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을 통하여 대학교수 5명과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 3명을 선정하였다. 대학교수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고등교육 연구 분야에 연구경험을 갖추고 있고,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수렴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중등 이후 교육 전문가, 장애성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장애 관련 법 및 제도 전문가, 장애인 웹 접근성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은 장애대학생 지원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소속 대학에서 지원

하는 장애대학생의 수가 40명 이상으로 장애대학생 지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은 동시에 전국 장애학생지원센터 협의회 임원으로 등록되어 전국의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의 다양한 환경과 사례를 대변해줄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적으로 편향성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대학교수는 소재대학의 지역을 4개 지역(서울, 경기, 충청, 경북)으로 나누어 선정하였고,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은 소재대학의 지역을 3개 지역(전북, 경북, 대구)에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안내를 듣고 면담자료의 활용에 동의하였고, 이에 최종적으로 전문가 8명이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정보

구분	기호	연령	성별	지역	비고
교수	A1	40세	남	경북	장애대학생들의 취업 현실과 지원방안에 대한 탐구,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탐구 등
	A2	44세	남	경기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 및 동향 분석,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정향성 분석 등
	A3	42세	남	경북	고등교육 환경에서의 전환 활동이 발달장애대학생의 직업능력과 학업능력에 미치는 효과 등
	A4	50세	남	충북	장애 관련법에 따른 장애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장애아 교육권의 위험 요인에 따른 개선 방안 등
	A5	54세	남	서울	장애학생을 위한 웹 접근성 개선 연구,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시스템 개발 연구 등
장애 학생 지원 담당 직원	B1	52세	여	경북	전국 장애학생지원센터 협의회 임원, 장애대학생 지원 업무 경력 4년, 소속대학 장애대학생 수 74명
	B2	55세	남	경북	전국 장애학생지원센터 협의회 임원, 장애대학생 지원 업무 경력 3년, 소속대학 장애대학생 수 190명
	B3	49세	남	전북	전국장애학생지원센터 협의회 임원, 장애대학생 지원 업무 경력 5년, 소속대학 장애대학생 수 41명

2. 연구 절차

1) 면담 질문지 개발

면담 질문지는 장애인 고등교육 현황을 교육의 형평성 관점에서 장애인 고등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및 선발,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 지원, 장애대학생의 졸업과 졸업 후 성과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눈 후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반구조화 된 개방형의 면담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기본적인 면담 질문지는 장애인 고등교육 기관에 4년 근무 경험을 가지고 특수교육 박사학위 소지한 1인과의 협의를 거쳐서 면담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고, 질문지는 <표 2>와 같다.

<표 2> 초점집단면담을 위한 질문

I.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및 선발

1.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고등교육 방식은?
2. 장애대학생 선발에 있어서 문제점은?
3. 장애대학생 특별전형 시행 20년을 맞이하여 성과는?
4.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가의 성과와 개선점은?

II.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 지원

1.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 과정상에 어려움과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은?
2.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은?

III. 장애대학생의 졸업과 졸업 후 성과

1. 장애대학생 중도 탈락을 예방을 위한 조치는?
2. 장애대학생의 졸업과 관련된 쟁점들은?
3. 장애대학생의 졸업 후 진로는?
4. 장애학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수 있는 학과와 취업과 연계 가능한 학과는?

2) 면담 실시

면담은 면담 질문지를 이메일로 미리 보내고 면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은 집단별로 각 1회씩 총 2회 실시되었다. 교수 집단은 2014년 12월 19일에 이뤄졌고,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 집단은 2014년 12월 23일에 이뤄졌다. 각 면담시간은 1시간 30분 소요되었고, 총 3시간 소요되었다.

면담은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대학 내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대회의실은 외부의 소음이 잘 차단되고, 탁자와 의자를 타원형으로 배열하여 서로 마주보며 앉아서 토론을 나눌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이 구성되어있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차와 다과를 준비하였고, 면담 내용의 속기를 위해서 각 자리마다 2대의 녹음기와 노트북이 배치되었다.

면담은 면담이 실시되기 전에 참여자에게 자신을 소개할 시간을 가진 후 진행자가 면담의 목적과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각 면담에는 면담에 참여하는 참여자, 면담을 진행하는 연구자, 그리고 면담 내용을 그 자리에서 속기로 기록하는 속기사가 참석하였다.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면담의 내용은 실시간 속기와 함께 녹음이 되었다. 면담에 대한 녹음은 SAFA사의 SR-M195F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3) 자료전사

총 3시간 분량의 집단 면담 내용을 속기사가 실시간으로 기록하였다. 속기사는 실시간으로 기록한 내용과 녹음된 내용을 비교하여 검토하며 전사하였다. 연구자는 전사본을 받고 녹음된 파일을 들으며 전사본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MS Wor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줄번호를 넣어 정리하였다. 전사된 자료의 양은 글자크기 10, 줄 간격 160, 자간 0, 장평 100으로 작성하여 A4 용지로 각각 32장(1040줄)과 49장(1577줄)이었다.

4)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면담 자료를 분석하고 의미를 도출하기 위하여 개방적 부호화(open coding)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연구자가 전사본을 읽고 전사 자료를 문장 단위로 끊어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의미제공의 기본 단위인 부호들을 개발하였다. 부호를 개발할 때 각 부호가 도출된 전사본과 전사 자료상의 위치(줄번호)를 함께 정리하였다. 이렇게 개발한 최초의 부호에 대해 장애인 고등교육 기관에 4년 근무 경험을 가지고 특수교육 박사학위 소지한 1인과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부호를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최종적인 부호를 범주화 하였다. 연구자와 장애인 고등교육 기관에 4년 근무 경험을 가진 특수교육 박사학위 소지한 1인과의 논의를 통해 범주를 확인해 나가면서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고, 하위주제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면서 더 큰 의미의 핵심주제를 생성하였다. 그 후 정리한 핵심주제와 하위주제들을 인용문과 함께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면서 핵심주제와 하위주제 간의 관계와 체계를 재차 검토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 장애인 고등교육 현황에 대한 핵심주제와 각각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각 주제별 분석한 자료는 발언자와 전사본의 줄 수로 표시하였다.

5) 자료 분석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를 위한 노력

이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적인 탐색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다수의 특수교육 관련 질적 연구에서의 전사 작업에 참여하였던 전문 속기사가 전사본을 작성하였다. 전사된 내용은 녹음된 내용과 대조하여 기록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해당 면담을 진행하였던 연구자가 녹음 자료와 함께 직접 각 전사본을 점검하여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둘째, 모든 전사 자료에 대하여 장애인 고등교육에 이해가 있는 특수교육 박사학위 소지자 1명과 함께 개별적인 부호화를 진행한 후 동료검토를 실시하여 부호화

작업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자료 분석의 신뢰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셋째, 분석 자료는 면담 참여자의 확인(member's check) 과정을 거쳐 정보 제공자의 관점에서 연구 결과와 해석의 타당도를 점검하였다. 즉, 면담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를 면담 참여자에게 제시하였고, 자신의 의견이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분석 자료에 제시된 것으로 제시되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면담 참여자들은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분석 자료에 대하여 문제가 없이 정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개방적 부호화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7개의 핵심주제와 20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초점집단면담에서 도출된 핵심 주제 및 하위주제

영역	핵심 주제	하위 주제
장애인 고등교육 현황	1.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	1. 개방된 대학 입학 기회와 닫힌 학과 입학 기회
		2. 장애를 숨기는 장애대학생
		3. 대학입학을 위해 특수학교로 가는 장애학생
	2. 장애대학생 도우미 제도	1. 장애대학생과 장애대학생 도우미 간 갈등
		2. 장애대학생 및 장애대학생 도우미에 대한 교육 필요성
		3.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육의 형식화(시간과 예산의 문제)
		4. 장애대학생 도우미 제도 예산 운영의 유연성 요구
	3. 장애대학생 복지실태평가	1. 평가 준비하는 담당자의 고통
		2. 복지실태평가 결과와 인센티브 간 연계
		3. 복지실태평가 지표 공고 시기의 문제
	4. 장애대학생의 선택	1. 장애대학생의 졸업 유예
		2. 장애대학생의 중도 탈락
	5.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의 3중고	1. 겸직으로 인한 어려움
		2. 잦은 부서 이동
		3. 수당 등 경제적 혜택
장애인 고등교육 전망	1. 등록금 벽	1. 고등교육 접근에 또 다른 벽, 등록금
	2. 장애인 고등교육 방향	1. 장애대학생 통합 형태에 대한 논의
		2. 발달장애인 고등교육의 투 트랙,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3. 특수학교 전공과의 대학 설치
4. 이중등록체제(dual enrolled system) 활용		

1. 장애인 고등교육 현황에 대한 인식

1)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

(1) 개방된 대학 입학 기회와 닫힌 학과 입학 기회

교수와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은 1995년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와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보장 등에 대한 법률로 인하여 더 이상 장애대학생의 대학 입학 기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대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과는 학과 소속 교수들의 장애대학생 입학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 장애대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학과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별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신문에도 난 사건인데 약시, 시각 장애학생들을 그것 때문에 했다가, 결국에는 사과하고 신문에 나와서 입학은 했는데, 이 학생은 마음이 상해서 성균관대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A5 : 455-458)

장애인들 특별전형을 확대하라고 총장이 단과대학으로 공문까지 찍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래 권고 공문을 쪽 내려도 학과장 회의를 학과 회의를 딱 해 가지고는 안 받는다,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예요, (B2 : 980-983)

(2) 장애를 숨기는 장애대학생

장애학생 중 일부는 일정 수준의 학업 능력을 갖추어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가 아닌 일반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장애로 인해 대학교 수업을 이수하기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애를 숨기고 대학수업을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도 자신의 장애를 숨기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대학생들이 대학교 환경에서 장애를 드러냈을 때 장애를 보상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래 대학생 친구들에게 낙인만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인식하였다.

교대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국악을 하는데 자세를 앉은 자세로 있어야 되는데 한 시간정도 계속 앉은 자세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지체장애가 있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절대로 말을 안 하고, 엄청 불편하게 한 시간 동안 참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학생을 아니까 너 왜 그러냐? 말 하지 않냐고 하니까 절대로 말 하면 안 된다, (A1 : 439-443)

지원 자체를 한다고 하면 엄청 질겁할 거예요, (A1 : 474)

그러니까 제가 통합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된 것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 장애 학생들의 법규나 이렇게 되면 낙인만 있고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A1 : 478-480)

(3) 대학입학을 위해 특수학교로 가는 장애학생

장애학생 중 일부학생은 대학 입학 시 생활기록부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 특수학교로 회귀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입학할 때 보면 이 아이들이 일반학교를 졸업을 안 하고, 특수학교를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고등학교 되면 특수학교를 가요, 왜냐하면 내신 때문에 가요, 특수학교가면 1등급이 되잖아요, 학생들이 7, 8명이에요, 무슨 특수학교가면 고등학교 3학년이 10명? 이 정도인데 중복장애 있고 그런 아이인데 그 중에 가서 1등하거나 어쨌든 장애 특별전형에서는 내신 1등급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더라고요, (A1 : 678-683)

2) 장애대학생 도우미 제도

(1) 장애대학생과 장애대학생 도우미 간 갈등

장애대학생과 장애대학생 도우미 간에 사소한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학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였던 장애대학생과 장애대학생 도우미 간의 관계가 장애대학생 도우미의 학과 생활 등으로 인해 소원해지고 장애대학생 도우미는 장애대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휴학까지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도 장애대학생이 제공하는 지원이 장애대학생에 대한 호감에 의해 나타난 행동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이 장애대학생과 장애대학생 도우미 간의 갈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동네에 옆에 있다 보니까 친구가 되어서 도우미 아닌 도우미로 해서 아주 잘 지낸 거예요, 다행스러운지 어찌됐든지 간에 대구대학에 같이 학교를 들어왔어요, 기숙사도 같은 룸메이트로 들어옵니다, 룸메이트가 됐는데 학교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1학기를 안 지나서 애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B2 : 103-107)

비장애인 학생인 친구가 궁색해지는 거예요, 궁색해지니까 나중에 울음보를 터뜨리고 이런 식으로 이유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비장애학생이 휴학을 했죠, 자기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휴학밖에 없다. (B2 : 116-118)

(2) 장애대학생 및 장애대학생 도우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 및 생활 지원 등을 해주어야 하는 장애대학생 도우미가 단순한 보조공학 기기의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최소한의 교수·학습 지원을 해주어야 하나 장애대학생 도우미가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우미 학생들을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휠체어 다루는 법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례입학은 실제로 해서 고등교육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수 학습 지원이나 도우미의 역할 무엇을 도와야 할지, 장애 영역에 따라서 그런 최소한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해서라도 도우미 역할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A4 : 792-795)

(3)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육의 형식화(시간 배정과 예산 운영의 어려움)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은 장애대학생 도우미 학생 수가 많을 경우 도우미 학생을 교육시키기 어렵다고 하였고, 그 중에서도 장애대학생 도우미의 바쁜 학교 일정으로 인해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육을 위한 시간을 배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 도우미가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장애학생만 200명 정도 되니까, 이 어떤 교육을 전문화시켜서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방법론도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B2 : 288-290)

도우미 200-300명 되지만 날을 잘 잡아도, 오라오라 그래도 결국 많이 오면 한 150명밖에 안 오거든요, 출석률이 한 50-60%밖에 안 돼요. (B2 : 370-371)

출석을 안 한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활동신청서 낼 때 그때 이제 이야기 한마디 던지고 교육을 같음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B2 : 375-376)

아까 이제 도우미 매칭 돼서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도우미 교육은 철저하게 필요하긴 한데 그 도우미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그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간적 제한도 있고, 제일 큰 것이 시간적 제한이예요. (B2 : 327-329)

그리고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은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육을 위한 시간 배정도 어렵지만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육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에서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학생의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기당 2시간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을 위한 예산을 교부해주지 않아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도우미 교육을 하든, 장애학생 교육을 하든 요즘 빵이나 우유라도 하나 안 갖다 주면 안 오거든요, 때론 저희가 또 도우미 학생이 많고 장애학생이 많기 때문에 특강자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수님으로, 교수님 초빙하면 거기도 뭐 교내 교수님이라도 돈 10만 원이라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인정 못 받죠, (B2 : 279-282)

도우미 지원 사업 안에도 도우미 교육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시되어 있지만, 도우미 교육은 명시되어 있지만 도우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인정 안 해 줘요, (B2 : 272-274)

결국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 여건 개선을 위해서 장애대학생 도우미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육을 위한 시간 배정의 어려움과 도우미 교육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육이 형식화 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출석을 안 한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활동신청서 낼 때 그때 이제 이야기 한마디 던지고 교육을 같음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B2 : 375-376)

(4) 장애대학생 도우미 제도 예산 운영의 유연성 요구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 예산 신청과 관련하여 장애대학생 도우미 학생의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하여 연초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 예산의 정확한 신청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시스템에 걸어가지고 정확하게 신청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때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장애 학생들이 도우미가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한 명 도우미가 원칙이지만 하다 보면 아이가 도망 가버려, 도우미가, '선생님 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알았다, 너는 오전에 하고 오후는 나눠 해라,' 이런 식으로 달래는 경우가 1년에 두세 명씩 나와요, 나오는 경우 그다음 주에 긴급도우미 발생률이 높다는 거죠, 긴급도우미는 예측을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시간당 지금 7천 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는 되어 있는데, 긴급도우미는 학생이 때론 뭐 어떤 리포트나 어떤 실습장 탐색이 나 이거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셈인데, '같이 안 가면 못합니다.' 하면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추가적으로 페이를 해 줘야 되는 거죠, (B2 : 575-583)

또한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 예산은 학교의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학교의 대응투자 자금과 관련하여 대학교 운영 예산이 부족한 대학은 대응투자금의 부담으로 인하여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 예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학교의 대응투자 자금이 대학회계에서 지출될 경우 대학에서 역차별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거의 군소대학들, 지금 모든 일류를 자칭하는 서울의 대학들 사립대학들 말고는 다 재정상 어렵잖아요, 또 교육부에서 일괄적인 어떤 구조조정이라는 틀을 짰대를 던져 갖고 '학생 수를 줄여라,'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대응자금 30%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B2 : 606-609)

국고로, 대응자금 순수 기성회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가져오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라고 하나 하면 '똑같은 등록금을 냈는데 왜 장애학생만 더 많은 거를 요구를 하느냐,' '이거 역차별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B1 : 661-663)

3) 장애대학생복지실태평가

(1) 평가를 준비하는 담당자의 고통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직원은 전반적으로 장애대학생복지실태평가를 가장 고통스럽고 귀찮은 것으로 간주하였고, 대학마다 장애대학생 지원 예산과 같은 여건들이 다름에도 동일한 지표를 맞추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더구나 장애대학생복지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과 제재가 미약한 것을 지적하였다.

케이스가 크니까 어떻게든 복지평가는 잘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좀 되지만 적은 군소, 장애학생이 적은 대학에서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단 말입니다, '갖출 건 다 갖춰야'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글썽요, 시설, 설비 쪽의 개선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점점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교수-학습 분야나 입학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다? 아무리 평가를 해도 요원합니다, 왜? 강제성이 전혀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패널티도 없고 이러니까 개선 안 되죠, 할 때마다 '아, 귀찮은 거'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넘어가고, 또 3년 뒤에 오면 전문가 다 바뀌어버리고, 담당자 다 바뀌어버리고, (B2 : 489-495)

(2) 장애대학생복지실태평가 결과와 인센티브

전문가는 장애대학생복지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복지실태평가 준비와 노력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평가를 하는데 평가해서 대학에서 잘 대학에서 잘 받으려면 무슨 대학이 주나요? 그런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학교에서는, (A4 : 618-619)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장애대학생복지실태평가 결과를 대학기관인증평가와 연계하여야만 장애대학생복지실태평가에 대한 강제성이 부과되고 그에 따라서 장애대학생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나 교수-학습 지원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나타내었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인증평가 전국 18개 대학 중에 장애학생 지원 분야의 우수 사례로 발굴된 대학이라고 자랑도 하지 않습니까, 자랑해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저도 자리에서 한번 건의한 바가 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 이 부분을 대학 교육기관인증평가에 담아라, 현재 갖고 있는 포션을 조금 더 넓히고 강제성을 부여해라, 그 분야에 최소 점수를 설정을 하면,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B2 : 699-704)

(3) 장애대학생복지실태평가 지표 공고 시기의 문제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은 장애대학생복지실태평가 지표를 평가실시 3년 전에 미리 제시하고, 그 지표에 맞춰서 3년간 준비하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요구하였다.

늘 저희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3년 주기라면 그 숙제거리가 3년 시작하는 그 시점에는 나와라,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표 관리라도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만약에 2014년도부터면 숙제가 언제 나오나 하면 2014년도 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8월 언제까지 보고서 완성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예요, 불과 한 학기 안에 이 보고서가 다 만들어져야 되니까 지표 관리는 3년 전까지 소급해서 하고 이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B2 : 809-814)

기준을 옛날 것을 가지고 했는데 평가는 엉뚱하게, (B1 : 793)

4) 장애대학생의 선택

전문가들은 장애대학생들은 대학 환경에서 졸업 유예와 중도 탈락이라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된다고 인식하였다. 졸업 유예를 하는 장애대학생은 소속대학에서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질 경우 사회 진출을 유예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체 중증인데, 지체 1급은 물론이고 1급 중에서도 중증인데 4년 졸업을 했어요, 또 편입해서 2년을 더 졸업한 거예요, 다른 과로 학사 편입해서, 결국은 대학원 시험 해 가지고 또 더 다니고 싶은 거예요, (B2 : 1313-1315)

왜? 모든 것이 다 알아서 하니까, 도우미 제공하겠다, 학교에 있겠다, 기숙사 있겠다, (B3 : 1108-1109)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요, 나가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라는 어떤 테두리 속에서 묻혀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B2 : 1134-1135)

반면에 대학에서 중도 탈락하는 장애학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장애대학생의 중도 탈락의 사유는 비장애학생과 다르지 않다고 인식했고, 그 사유로서 건강상의 문제, 전공 불일치, 학교의 지원 부족, 조기 취업 등으로 제시하였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으로 조금 그런 케이스가 나오고, (B1:1406-1407)

포괄적으로 대학생활 적응이 문제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공 선택이 자기가 잘 못한 것으로 돼 가지고 전공이 자기가 적성이 안 맞아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탈락하는 학생은 그 대학에서 갖고 있는 소위 전과, 이런 제도에 컨텍이 안 됩니다, 전과를 컨텍 하려면 학과 안에 성적이 나름대로 상위레벨이 돼야 전과를 할 수 있는 원서를 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B2: 1439-1445)

왜? 학교에서도 관심 없지, 도우미도 관심 안 주지,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스스로가 '아, 내가 이 학교를 잘못 왔구나,' 탈락을 해 버려요, (B3 : 1471-4172)

5)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의 3중고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은 3중고에 처해있다고 인식했다. 첫째는 겸직으로 인한 어려움이고, 둘째는 잦은 이동으로 인한 어려움이고, 셋째는 수당의 문제이었다. 그 외에도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은 대학 소속의 직원으로서 이전에 장애학생을 접해본 경험이 없고, 장애대학생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을 인식하였다.

많은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이 한 30명 미만 되면 센터는 이름만 센터고 다 겸직입니다, 다 겸직이고 심지어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업무는 그냥 결까지 하나 붙은 것이고 주 업무는 다른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대학마다 너무 크다, (B2 : 389-393)

한 부서에 왔으면 몇 년 간의 어떤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1년 하다 보면 보내고, 적응할 만한 하면 후딱 보내고 이러니까, (B1 : 1566-1567)

특수부 수당 안 줘요, 일은 정말 특수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특수 업무에 아직 혜택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B1 : 437-438)

연수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억지로 와가지고, 억지로 와가지고, 아마 다 억지로 와가지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B3 : 1561-1562)

2.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인식

1) 등록금의 벽

전문가들은 장애대학생의 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뿐만 아니라 장애대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장애대학생 부모는 자녀의 대학 진학을 원하고 있으나 높은 등록금 때문에 대학 진학을 주저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장애대학생에게 적절한 등록금 지원 제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여기에 저도 선발 하고, 기회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일반적인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면, 고등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등교육 이후에 중등기까지는 무상인데, 고등교육을 할 때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차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 센터도 마찬가지고, 일반 학생들의 준한 여기는 한 학기에 50만 원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대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 천 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경도장애 학생이라고 해도 오고 싶은 학생이 없고, 장애가 무거우면 돈이 있어도 시험을 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고, 장애가 가벼운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기회가 편파적으로 기회를 제공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A3 : 525-533)

돈과 재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여러 명의 입학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편지도 많이 받고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나 많고, 어떤 학생들은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만들어서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를 주는 그런 재정적인 연구를 해야 되고...(A3 : 537-541)

2) 장애인 고등교육 방향

(1) 장애대학생 통합 형태에 대한 논의

교수는 장애대학생들의 대학 내 통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통합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구체적으로 하이브리드 형태, 콘솔형태, 안전개별시도 형태 등 다양한 형태를 제안하였다.

고등교육도 뭐라고 할까 통합 유형이 굉장히해요, 통합에 대한 원리모형, 하이브리드모형, 콘솔모형, 안전개별시도모형부터 시작을 해서 모형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전반적, 통쳐서 통합교육과 관련된 원리교육이나 이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적립을 해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A3 : 321-324)

(2) 발달장애인 고등교육의 두 트랙,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교수는 발달장애대학생은 학위 과정 이수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사회 적응이나 취업을 위한 비학위 과정의 고등교육 형태가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면 대학에서 교육은 학위과정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고요, 왜냐하면 고등교육은 인지능력이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비학위과정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 대신에 고등학교에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이런 졸업을 위한 것을 따다가 지역사회에 적응을 하기 어려운 훈련이 덜된 사람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대학기반 안에서 비학위 과정으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짜서 제공을 해주어서 나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발달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 방식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A3 : 371-378)

한편, 발달장애 고등교육의 형태를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구분하고 현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과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발달장애학생의 경우 비학위과정을 통해 발달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운영하고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학위 취득 방법을 제안하였다.

평생교육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위과정은 아니고 크레딧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냥 수료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애 고등교육은 발달장애인에게 직업적인 포커스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각, 청각, 지체 장애 학생들은 이미 95년부터 고등교육 입학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등교육 방식을 credit과정하고 non-credit과정으로 이야기를 두 가지 방향으로 나사렛대 같은 경우에는 credit과정으로 가고 있고요, 어떤 학위과정으로 하고 그리고 이화 여자대학이나 아니면 대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학위과정으로 가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다 비학위과정입니다, (A3 : 359-366)

비학위과정으로 들어왔는데 학위과정 수준이 좋아서 학위과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평생 교육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credit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점 은행제를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 그것도 다 말고 필요한 학생들의 장애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안에서 운영을 하면, 그래도 비학위과정으로 들어왔지만 최소한 전문학사, 학위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구성하는 게 쉽지 않지만, (A3 : 388-393)

(3) 특수학교 전공과를 대학 내 설치

교수는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해 특수학교에 설치된 전공과를 대학 내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물론, 전공과 설치 규정으로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장애학생 부모가 대학교의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고등교육으로 진학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과를 대학 내 설치하여 무료로 제공할 경우 보다 높은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전공과를 대학에 만들거나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공과에서 같은 선생님의 같은 학교에 같은 프로그램을 받는데 중등학교 이후의 교육이라고 하면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느냐? 똑같은 내용, 선생님도 똑같고, 교육과정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은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계속 거기에 다니는데 상위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공과에 대한 개설 기준을 보니까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기간에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규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풀어 고치면 캠퍼스에서 자유롭게 통합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등교육 PSE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거죠, (A3 : 577-584)

(4) 이중등록체제(dual enrollment system) 활용

교수는 이중등록체제를 제안하였다. 이중등록체제는 장애 고등학생에게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동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해주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장애 고등학생에게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중등록체제를 제안하였다.

요즘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이중등록이라고 있어요, 이중 동시 등록 시스템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대학에 있는 고등교육 기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학생들과 연계를 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대학의 어떤 고등교육 기회를 조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서 3개월, 5개월, 반 년 정도 해서 대학에서 받고 이쪽에서는 고등교육에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재정적인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는 한데, 고등교육의 분력, 장애의 종류나, 재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죠, (A3 : 541-549)

재학기간을 늘리는 게 아니고, 동시등록입니다,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받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A3 : 559-560)

전공과에 있으면서도 대학교와 연계해서 시스템을 할 수 있고 일부 시도에서 우리나라에서 특수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이야기를 했던 돈이 없는데 안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도 대학식 기관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돈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A3 : 573-576)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장애인 고등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교수 및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의 인식을 탐색하기 위하여 집단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장애인 고등교육 현황과 관련하여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제도, 장애대학생복지실태평가, 장애대학생의 선택,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의 어려움이라는 5가지 핵심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탐색하였다.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와 관련하여 대학은 장애대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기회는 열려있으나 일부 학과의 소극적 태도로 학과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 장애학생이 대학 입학이나 대학 생활에서 장애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현상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그 이유로 장애대학생이 적절한 지원을 받기 위해 장애를 노출할 경우 낙인만 있고 적절한 지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장애로 인한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비의도적으로 노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김동일 외(2013)의 연구결과와 장애대학생 지원이 실질적 도움을 주는 데는 매우 부족하다는 김미선(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장애대학생이 장애로 인한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학습결손이 누적되고 결국 장애대학생의 중도탈락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장애대학생이 자신의 요구를 학교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기옹호 기술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김경민, 2014).

장애대학생 도우미 제도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은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했으나 시간 배정과 예산의 부족함으로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육의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육은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와 같이 제시되었고, 실제로 장애대학생도 요구(김미선, 2008; 최지영, 2009)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대학생 도우미 학생 역시 도우미 역할의 범위와 한계의 모호함에 혼란을 겪는 점(강혜경, 김정효, 이경순, 2011; 김미선, 2011)을 감안하여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학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시간적 제약 등으로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육이 어렵다는 장애학생지원 담당 직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육 방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격교육은 시간적·지리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우정한 외, 2006),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육을 e-러닝 형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장애대학생복지실태평가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은 평가 준비를 상당한 업무의 과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장애대학생복지실태평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평가 결과가 대학기관인증평가 등과 연계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장애대학생

복지실태평가 지표가 미리 통지하고 각 대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장애 대학생복지실태평가는 '대학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처음 실시 이후(곽정란, 2009)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이루어졌고, 그 결과 각 대학 내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 여건이 개선된 바 있다. 차후 장애 대학생복지실태평가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차기 평가 지표를 미리 공지하여 각 대학이 지표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평가 결과를 대학기관인증평가와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대학생의 선택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졸업 유예와 중도 탈락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장애대학생들은 대학에서 기숙사, 교수-학습, 생활 지원 등으로 인하여 편입, 대학원 입학과 같은 방법으로 대학에서 유예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장애대학생들 중 중도 탈락을 하는 학생도 있는데 장애대학생의 중도 탈락의 사유로서 건강상의 문제, 전공 불일치, 학교의 지원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는 장애대학생이 실제로 건강상의 이유로 대학 수업을 이수하기가 어렵다는 연구(김동일 외, 2013; 최지영, 2009)와 장애대학생이 전공 공부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연구(조성희, 손승현, 2013)와 일치한다. 장애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영역별로 독특한 교수-학습 지원 요구들이 있다는 것(이효자, 이정현, 홍성두, 2011)을 고려하여 장애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장애대학생이 학업이나 대학환경 적응보다 개인 정서적 적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연구(박미화, 2014; 윤민우, 황경열, 2014)를 고려하여 개인적인 상담 지원도 요구된다.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의 어려움은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이 장애학생지원 외 부과되는 겸직업무, 전문성 누적을 저해하는 잦은 인사이동, 낮은 보수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5)의 대학알리미 사이트(<http://www.academyinfo.go.kr>)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 장애대학생수는 8,248명이고, 장애학생 지원 인력은 654명이었다. 즉 장애학생 지원 인력 1명당 약 12.6명의 장애대학생을 지원하고 있었고, 더구나 장애학생 지원 인력 654명 중 518명(약 79%)이 겸직을 하고 있었다. 즉 장애학생지원 담당인력은 많은 장애대학생 수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대학생지원 외 부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장애대학생 지원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이 장애학생지원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 고등교육 전망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접근에 또 다른 벽으로서 등록금에 대한 부분과 그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장애대학생 및 그 학부모는 대학교육에 대한 열망은 있으나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장애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고등교육 방향과 관련하여 장애대학생 통합 형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를 지닌 장애대학생을 위한 고등교육 여건보다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방안을 주로 제시하였다. 발달장애인 고등교육의 방향으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두 가지 방향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장애대학생은 고등교육 접근과 관련하여 등록금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전공과를 대학에 설치하는 방향과 이중등록체제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특수학교 전공과를 대학에 설치하는 방향과 관련하여 특수학교 전공과 교육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그 역할을 대학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김주영, 강경숙, 2012). 한편 이중등록체제에 대하여 특수학교(급) 중등교사들은 이중동시등록제도를 통해 발달장애학생의 진로 기회와 영역을 확장시키고 대학기관을 전환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박정식, 류현주, 2014; 정동영, 2012).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을 위해서 특수학교 전공과를 점차적으로 대학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이중등록체제를 통해서 접근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면담 대상자로서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을 선정할 때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전국 장애학생지원센터 협의회 임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전국 장애학생지원센터 협의회 임원이 소속된 대학은 장애대학생에 대한 대학의 예산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의 예산 지원이 소극적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둘째, 면담 대상자 중 교수 혹은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에게 고른 발언의 기회를 부과하여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나 특정 교수 혹은 특정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고등교육 방향만 주로 다루어졌다. 이에 발달장애학생 외 다른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 집단과 교수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1회씩 면담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는 질적 연구에서 담보해야 할 면담자료의 포화 측면에서 각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드러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참고문헌

- 강혜경, 김정효, 이경순 (2011). 장애대학생 도우미 활동에 참여한 비장애대학생의 장애 인식, 경험 및 요구 분석. **통합교육연구**, 6(2), 268-294.
- 곽정란 (2009). 장애인의 고등교육사에 대한 문화기술적 고찰.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0(1), 57-84.

- 교육부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 교육부.
- 김경민 (2014). 장애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자기옹호 경험의 현상학적 연구. **특수교육**, 13(2), 5-42.
- 김남순 (2001). 장애학생의 특례입학과 대학시설 환경 및 제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 연구**, 36(1), 81-100.
- 김동일, 정소라, 고혜정, 김주선, 김수연 (2013). 장애대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 과정에 관한 질적분석 :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6(1), 65-95.
- 김미선 (2008). 장애대학생의 대학 내 지원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및 요구. **특수교육연구**, 15(2), 121-136.
- 김미선 (2011). 대학의 장애학생 도우미 경험을 통한 장애학생 도우미의 인식 보고. **특수교육**, 10(1), 187-207.
-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 장애 대학생 학업성취 실태 및 대학생활 욕구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37(4), 335-357.
- 김주영, 강경숙 (2012).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 형태에 대한 탐색. **특수교육 연구**, 19(1), 217-240.
- 김헬레나 (2000).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 논문.
- 박미화 (2014). 장애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특수교육학 연구**, 49(1), 241-262
- 박정식, 류현주 (2014). 발달장애학생의 중등과정이후의 교육을 위한 이중동시등록제도에 관한 교사 인식. **지적장애연구**, 16(4), 135-164.
- 서창원, 오세철 (2012). 전담교직원의 행정문화화를 통한 대학 장애학생 인력지원에 대한 질적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5(4), 415-430.
- 우정환, 윤광보, 김성애, 정희섭 (2006). 통합교육 효율화를 위한 웹기반 교사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7(2), 127-153.
- 원종례 (2001). 장애대학생의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연구**, 8, 47-70.
- 윤민우, 황경열 (2014). 장애대학생의 열등감과 대학생활부적응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3(4), 121-140.
- 윤점룡, 김주영 (2012).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 체계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이미숙 (2011). 지체장애 대학생을 위한 도우미 지원 운영에 대한 사례연구. **중복·지체부자유 연구**, 54(3), 147-175.
- 이효자, 이정현, 홍성두 (2011). 대학에서의 교수·학습지원권에 대한 장애 대학생의 인식 조사 : 시각·청각·지체장애 학생들을 중심으로. **통합교육연구**, 6(1), 25-43.
- 임진선, 이철원 (2011). 장애 대하객 도우미 경험과 진지한 여가. **여가학 연구**, 9(2), 61-83.
- 정동영 (2012). 미국의 지적장애학생 중등과정 이후 교육 현황과 함의. **지적장애연구**, 14(4), 27-53.

- 정동영, 박승희, 원성욱, 유숙열 (2005).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편람 개발 연구**.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 정정진 (2007).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개선 방안.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8(1), 109-132.
- 정정진, 강병근, 김원경, 김정열, 박광재, 성기창, 이해균, 황도순 (2003).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교육복지 지원 실태조사 및 학습권 보장방안 연구**.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연구보고서.
- 정정진, 이해균 (2006). 대학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특수교육 저널 : 이론과 실천**, 7(1), 507-533.
- 조성희, 손승현 (2013). 장애대학생의 학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4(3), 261-292.
- 최지영 (2009).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 연구**, 10(4), 2571-2589.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공시센터 (2015). 대학알리미 내 2014년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http:// www.academyinfo.go.kr](http://www.academyinfo.go.kr)(검색일 : 2015. 5. 2)

Exploring Experts' Opinions on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in Higher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Kim, Young-Seo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Dong-You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 was to diagnose current status and suggest perspectives on higher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rough exploring experts' opinions. For this study, a total of 8 professors and university staff for support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who have substantial research experience and practice on this topic, participated in focus group interviews. The scripts of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with an open coding method and seven themes and twenty sub-themes were classified. We discussed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on higher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under these seven themes : 1) the special admission program for the applicants with disabilities 2) the assistan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university 3) the evaluation of education welfare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university, 4) the selec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university(delay or dropout) 5) the difficulty of university staff for support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6) another barrier, tuition and 7) the future model for higher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Finally, several specific implications on higher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were provided.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higher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post-secondary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focus group interviews

논문 접수: 2015. 05. 04 심사 시작: 2015. 05. 15 게재 확정: 2015. 06. 27